



Q 르포 | LG유플러스 'U+ AR 스튜디오' 가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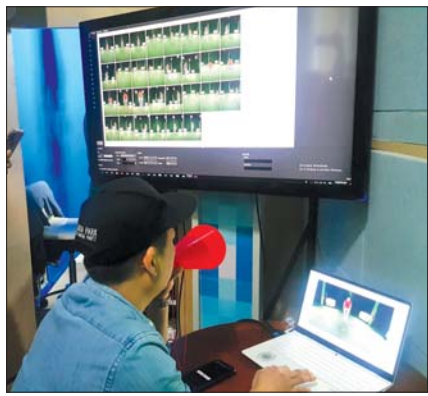
청하·홍진영과 춤을?

5G는 콘텐츠, 4K 가상현실로 즐긴다

#5월 31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TV 스튜디오. 모델이 청하의 '12시' 춤을 추자 조정실의 30여개 모니터에 360도 각도로 3D 모델링이 생성된다. 4K 카메라 30여대가 인물을 서라운드로 촬영한다. 작업을 완성하자 스마트폰에 증강현실(AR) 캐릭터가 나타나 청하의 춤을 춘다. 손가락으로 이곳 저곳을 돌려보면 눈 앞에서 여러 각도로 춤추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

소비자 간 거래(B2C) 모델로 미디어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5G 상용화 함께 400여편의 AR콘텐츠를 5G 가입



LG유플러스 직원이 'U+AR스튜디오'에서 AR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AR 콘텐츠 제작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소재 아리랑TV에 약 100㎡ 규모의 'U+AR스튜디오'도 오픈하고 연내 제2스튜디오 개관까지 추진한다.

김준형 5G서비스추진그룹장(상무)은 "5G 서비스를 시작하기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5G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실사의 3D 360도 AR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은 4K 화질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새 기업과

이용자 사용패턴 분석 결과, 청하, 마마무, AOA, 홍진영, 에이핑크 등 유명 아이돌 콘텐츠 조회수가 전체 조회수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750여편의 5G AR 전용 콘텐츠를

AR 콘텐츠 제작에 100억 투자
서울서 100㎡ 규모 스튜디오 오픈
4K 카메라 30대·서버 45대 갖춰
5G AR 전용 콘텐츠 1500편 목표
고품질 AR 콘텐츠 솔루션도 도입

연내 1500편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중인 'U+AR스튜디오'는 약 100㎡ 규모의 스튜디오에 4K 화질의 동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30대와 전용 서버 45대, 촬영용 특수 조명 등을 갖춰

다. 360도 입체 촬영 제작 기술을 보유한 미국 8i와 독점 제휴해 고품질의 A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용 솔루션을 도입했다.

국내 시각특수효과 분야 텍스터와는



서울 서초동 소재 U+AR스튜디오에서 모델이 세계 최초 4K화질의 360도 AR콘텐츠 제작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동 전선을 구축해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 콘텐츠는 실사를 기반으로 360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사 영상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다. 2.5㎡ 공간의 크로마키로 된 특수

촬영 장소에서 아이돌이나 모델 등을 불러 댄스나 동적인 장면을 촬영하면 3D로 모델링할 수 있다.

또 다섯 개의 전문 콘텐츠 기획사인 시어스랩+자니브로스, FNC프로덕션, 벤타 VR, 플래닛미디어, 쿠드비와 함께 5G 콘텐츠 기획과 연출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와 키즈, 30~40대를 위한 스포츠장르 등으로 AR 콘텐츠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2U+AR스튜디오 인프라가 확장되면 보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빠르고 많은 양으로 제작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튜디오가 활성화 되면, 콘텐츠 제작자에게 오픈해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준형 상무는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앞으로 5G가 활성화되면 유료화할 계획"이라며 "예능인이나 유명 스타를 초청해 '사랑해', '고마워' 등 감성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 스티커 형태로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서울대 "6G 시대 앞당긴다" 맞손

이동통신·자율주행 기술 등 개발

KT와 서울대가 6세대(6G) 이동통신 통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다.

KT는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와 '6G 통신 공동연구 및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개소 25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연구개발(R&D)의 산실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KT의 통신기술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통신을 준비하는데 의의가 있다. KT와 서울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6G 개발 방향 및 표준화 공동연구, 자율주행 사업 공동 발굴 및 규제 개선 상호 협력 등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 융합기술원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6G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화 기술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6G 표준기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통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QLED 8K' 테크 세미나 개최

11개국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QLED 8K'를 주제로 한 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테크 세미나는 지역별로 영상·음향 분야 전문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중남미 행사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역대 가장 많은 11개국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에 QLED 8K를 순차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삼성전자 주최로 열린 'QLED 8K' 테크세미나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들이 QLED TV의 스마트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적으로 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8K TV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유럽 인재 모셔라... 독일로 날아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프랑크푸르트서 채용박람회 주관
배터리 과학 등 전공자 다수 모여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독일 현지에서 취임 후 첫 글로벌 인재확보에 나섰다.

2일 LG화학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지난 주말 노인호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 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메이라 호텔에서 열린 채용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주요 10여개 대학 및 연구소의 석·박사 및 학부생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 부회장은 직접 이들에게 회사를 알리고 비전을 공유했다.

LG화학은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인재 채용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등에서 CEO가 직접 주관하는 채용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유럽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화학·소재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LG화학은 미래 성장동력인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소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에서 인재확보에 나선 것. 실제로 이날 참석한 인재들은 배터리 과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생명과학 등 배터리와 소재, 바이오 분야의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V50 씽큐' 美 출시... 5G 스마트폰 시장 공략

LG전자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 5G용 'LG V50 씽큐(ThinQ)'를 출시하며 5G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를 통해 LG V50 씽큐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이 첫 출시국이다. 애틀랜타, 캔자스시티, 댈러스, 휴스턴을 시작으로 시카고, LA, 뉴욕, 피닉스, 위

싱턴D.C 등 스프린트의 5G 통신환경이 구축되는 9개 도시에 순차 공급한다.

LG전자는 스프린트와 핀란드 모바일게임 스트리밍기업 해치가 협업해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현지 사업자들이 5G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어 LG V50 씽큐의 탁월한 멀티미디어 성능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LG전자 모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지난 31일 미국에 출시된 LG V50 ThinQ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